# “힘들때마다 오늘 배운 명상으로 극복할 터”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29명, 진관사 템플스테이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
### 다도 명상, 칠성각 등 순례

진관사=김주일 기자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지난 8월 15일, 서울지역 항일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던 은평구 진관사서 광복 77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9명(미국계 19명, 카자흐스탄계 10명)을 대상으로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진관사는 1919년 독립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가 발견된 곳이어서 이날의 행사는 더욱 큰 의미가 전해졌다.

예정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 30분, 진관사 경외에 있는 한문화체험관 지하 1층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의 뼈아픈 희생과 고귀한 애국정신을 떠올리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며 “오늘 이 사찰 체험을 통해 자랑스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께서 한국 전통의 문화를 느끼고 역사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77주년 광복절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목숨을 불꽃 속으로 던지신 백초월 스님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문화체험관에서 명상체험 중인 참가자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대웅전 앞에서 참가자들과 스님들이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진관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거점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진관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마음속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초월 스님(1878~1944)의 종손 백외식 선생도 “초월 스님께서는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며 “1919년 11월 상해 임시정부 성립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했다가 12월에 왜경에 잡혀 옥고를 치루셨고, 1944년 청주 형무소서 순국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 광복에 바쳤다”고 스님의 독립 정신을 강조했다.

간단한 개막 행사후에는 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 선우 스님의 진행으로 차담이 열렸다. 비록 원탁 테이블이지만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차 마시는 예법을 꼼꼼히 소개했다. 차담을 마친 참가자들은 3층 대방으로 자리를 옮겨 명상 체험을 했다. 사방이 탁 트인 방이라 창문을 여니 북한산 계곡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오늘 만큼은 마음을 조금 쉬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선우 스님의 멘트에 따라 가부좌를 튼채 앉아서 명상에 들어갔다. 이윽고 잠시후에는 아예 사선으로 누워 와선까지 골고루 체험을 했다.

40여 분간의 명상 체험 후에는 도보로 진관사 대웅전까지 천천히 행선을 했다. 마지막 사찰 체험은 대웅전 옆 태극기가 발견된 장소인 칠성각이었다.

이 태극기는 당시 진관사에 주석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한 백초월 스님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후세에 그 전하고자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칠성각 태극기 체험을 끝으로 이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대웅전 앞에 다시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 했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후손 박 타티아나(71, 여)씨는 “차 마시는 방법을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서 자랑스럽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백일정진기도로 선학원 사찰 보호 결의

### 전국비구니회는 8월 12일
### 법룡사 · 전국위원 사찰서
### 현수막 내걸고 동시 기도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이 미타암에 게재한 현수막.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백일정진에 입재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8월 12일 오후 법룡사 만불전에서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백일정진기도’를 입재했다. 입재일이 백중인 만큼, 같은 시각 전국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이 130여곳의 각 사찰에서 동시에 기도에 입재했다. 기도정진 회향일은 11월 9일이다.

백일정진기도는 지난 7월 11일~12일 긴급회의에 따른 평가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입재일에 앞서 현수막을 제작해 각 사찰에 배포했으며, 백일정진기도 봉행을 비롯해 지회 소속 사찰에 대한 동참 권유 등을 당부하는 공지를 통해 실천을 독려한 바 있다.

공식 입재법회가 법룡사에서 봉행되는 동안, 함께 입재한 전국 각 사찰들은 기도 사진과 현수막 게재 사진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비구니회는 “백일정진기도는 비구니 승가 보호를 위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내기 위한 여정”이라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선학원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 선학원 정상화 발원 100일 기도집회 회향

### 선학원미래포럼, 8월 17일
### 회향식서 “활동 확대”천명




재단법인 선학원 정상화를 발원하는 염원을 담아 선학원미래포럼이 주도해 온 제2차 100일 집회가 회향했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과 선학원 사부대중은 8월 16일 제2차 백일집회 회향을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하고 그간 경과와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선학원미래포럼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성범죄자 법진(최종진) 선학원 이사 및 일체 직책 사퇴 촉구’ 하고 선학원 정상화를 발원하며 진행된 제2차 100일기도에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집회에 동참해주셨다”며 “그 성과로 법진 스님이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주지 몰래 절 땅을 팔아먹은 ‘총림선원 토지매각’ 사건과 선학원식 절뺏기라 할 수 있는 ‘청화사 사고사찰 지정 및 재산관리인 파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향성명서를 통해 “선학원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차 회향을 기점으로 전국비구니회와 연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선학원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 불교계, 집중호우 이재민 위한 자비나눔 이어가

### 조계종복지재단, 동작구에 전달
### 연화정토사, 취약계층 쌀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16일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센터를 방문, 서울 도림천 범람으로 수해를 겪은 신대방1동 주민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16일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센터를 방문, 서울 도림천 범람으로 수해를 겪은 신대방1동 주민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불교계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8월 16일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센터(동장 김혜란)를 방문, 서울 도림천 범람으로 수해를 겪은 신대방1동 주민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서울 연화정토사는 쌀 4000kg을 전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작구 신대방동은 8월 8일 하루 동안 381.5㎜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141.5㎜ 폭우가 내리면서 도림천 물이 범람,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인근 주택 상당수가 침수, 600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상태다.

이날 전달식에서 보인 스님은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해를 겪은 분들이 너무 많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오늘 전달한 이불이 마음이 춥고 고달픈 신대방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 파견 및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연화정토사**도 8월 16일 수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쌀 4000kg을 전달했다.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도 8월 16일 수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쌀 4000kg을 전달했다.

주지 성천 스님은 “비 피해 소식을 접하고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 십시일반 마련했다”면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연화정토사의 뜻에 따라 쌀을 수해민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료급식소 원각사와 새터민 자녀를 돌보는 삼정학교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화정토사는 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신도들과 쌀을 모연, 기부하고 있다. 2020년에도 수해민에게 쌀 4톤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와 동해안 산불지원, 종립학교에 장학금 전달 등을 지속하는 등 자비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 8월 13일, 광주 나눔의집서

광복 77주년이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지정 10주년을 맞아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기림의날 행사 ‘기억에서 소망으로’가 개최됐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201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8월 13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진행된 이날 법석에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4분 중 강일촌, 이옥선, 박옥선 어르신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